경영정보

임업부문 UR타결 내용과 대책

산림청 국제협력과

지난 3월에 실시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검증결과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밤, 잣, 대추 등 산림부산물의 수입개방이 우리앞에 직면해 왔다.

산림청에서는 UR검증과정에서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생산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의 장·단기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먼저 UR타결로 인하여 임산물의 수입개방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산물은 크게 목재류, 석재류, 산림부산물로 구분되는데 목재류, 석재류는 UR 이전에, 밤, 잣, 대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림부산물도 1980년대 또는 1993년까지 이미 수입 개방되었다.

따라서 이번 UR협상타결로수입이 개방되는 것은 밤, 잣, 대추 3개품목으로서 품목별 개방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밤, 잣, 대추는 UR협정문이 발효되는 1995년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에 수입 개방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국내외가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즉 밤은 현행 50%인 것을 243.8%, 또는 1,634원/kg중 높은 세율, 잣은 현행 30%인것을 629.8% 또는 2,960원/kg중 높은 세율, 대추는 현행 50%인 것을 679.4% 또는 6,445원/kg중 높은 세율을 기준세율로 하여 이들 세율을 2004년까지 점차 감소(10%)시킬 계획이다. 즉, 수입개방을 하면서 높은 종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저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선택세율을 채택할 예정이다.

둘째, 밤, 잣, 대추 중 국내소비량의 3%(1995)~5%(2004년)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앞에서 설명한 고율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밤 50%, 잣 30%, 대추 50%)을 부과해야 한다. 품목별 수입물량은 1995년에 밤 1,302M/T, 잣 31.7M/T, 대추 155.7M/T이고, 연도별로 점차 확대하여 2004년에 가면 밤 2,170M/T, 잣 52.9M/T, 대추 259.5M/T이다.

정부에서는 국내생산자보호 및 유통질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잣의 최소시장접근 수입물량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밤·대추의 수입물량은 쿼타공매제(quota auction)를 채택하여 수입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입용도도 가공용 또는 가격안정용에 한정하며, 수입시기도 국내산 집중출하기를 피해

서 수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으로 인한 이익금은 임업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관계 부처간 협의중에 있다.

이와 같은 밤, 잣, 대추의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밤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높은 耐蟲性, 耐寒性, 高糖度, 박피가 용이한 우량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밤나무의 적정 식부면적 유지를 위해 노쇠목으로 수확이 저조한 임지는 갱신조림하여, 산주 희망에 따라 폐경지등에 신품종조림을 권장할 방침이다. 생산비절감을 위해, 밤나무조성지에 작업로 설치를 지원하고, 밤 박피기 개발을 연구중이며, 헬기를 통하여 밤나무 병해충방제를 지원하며, 홍수출하방지를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확대(2001년까지 67천㎡)하고 출하조절자금을 지원('94 : 110억원)할 계획이다.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수매자금을 적기에 융자('94 : 190억원) 지원하고 국제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에 수출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며, 해외공관, KOTRA 등을 통하여 수출상대국의 기호도, 수입동향 등 정보자료를 입수 전파하고 있다.

둘째, 잣에 대하여는 잣 채취기계 및 잣나무 등목기를 개발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개별 부업적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생산의 협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잣 생산지에 임도를 확충코자 한다.

셋째, 대추에 대하여는 열풍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방법을 개발하고, 지역별 집단저온저장시설 및 가공공장 설치를 추진하며, 건조기, 포장박스, 재배용비료대 등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밤, 잣, 대추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방되어 수입하고 있는 고사리, 표고, 곶감 등 산림부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보조대상 및 보조율('94기준)

사업별	세부사업	보조율 (%)	ha당사업비 (천원)	보 조 대 상
조 림	장 기 수	72	1,894	불량임지, 병해충 피해지등 수종갱신 대상지
	속 성 수	37	512	희망산주 우선
육 림	풀베베 기	60	205	조림당년포함 1~5년된 조림지
	어린나무가꾸기	60	657	조림후 5~10년된 임지
	덩 굴 제 거	82	225	칡덩굴 무성임지
	천연림보육	80	666	밀생된 우량천연림
	솎 아 베 기	80	510	조림후 15년내외의 조림지
임 도 시 설		90	44,548 / km당	당해년도 임도시설 예정지에 책정된 산주

경영정보

천마재배로 농가소득 올리자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약용식물인 "천마" 재배기술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 김현중 연구관은 기존의 미비한 천마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재배농가의 고소득작목으로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천마재배기술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톱밥종균을 원목에 접종하여 골화시키고 여기에 종마(種麻)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작업과정에서 불필요한 노력이 추가되거나 균의 특성을 이용한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등록종균의 유통, 기존 재배농가의 높은 분양가 등으로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마재배기술향상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재배장소는 천마 자생지와 비슷한 곳이면 재배가 가능하며, 습도가 유지되면서 배수가 양호한 양토~사양토의 토성이면 좋다.

-재배원목은 참나무류가 가장좋고 과수류를 포함한 벚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등의 활엽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목 직경은 10~20cm내외로 60cm의 작은 토막으로 자른다.

-재배균은 우수한 뽕나무 버섯종균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서 생산된 종균을 분양받는 것이 좋다.

-원목접종방법은 샌드위치접종법과 천공접종법이 있으나 샌드위치접종법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산나물 알고 먹읍시다

○우리나라 산에서 자라고 있는 수많은 식물들은 어느하나 인간에게유용치 않은 것은 없으며, 이중 산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은 800여종에 이른다. 산채 채취 적기는 이른봄부터 초여름까지이며 특히 새순이 연한 상태일때 채취해야만 제맛이 난다.

-이른봄에 채취할수 있는 산나물은 얼레지, 회잎나무새순이며 그후에 나오는 두

릅나무새순, 음나무새순, 참죽나무새순, 참나물, 참반디, 영아자, 모시대, 왜우산풀, 밀나물, 참취, 곰취, 풀솜대, 냉이, 둥굴레, 벌깨덩굴, 생강나무잎, 윤판나물, 원추리, 삽주나물, 참쑥, 고비, 고사리, 박쥐나물, 고추나무새순 등의 산채맛은 진미이며 이중 특히 참나물, 영아자, 모시대, 참반디, 곰취 등은 생채쌈으로 하거나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된장을 찍어먹으면 그향이 독특하여 산채의 특유한 맛을 볼수있다.

○산채가 나오는 시기에 독초도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독초를 모르고 먹을경우 건강을 해침은 물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채로 확인된 것만 채취이용하여야 한다.

-앉은부채와 같이 그잎 모양이 크고 탐스러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먹을수 없는 맹독성 독초이며 이와 같이 그 모양만 보고 채취 이용해서는 않되는 독초는 60종류나 있으며 두루미천남성, 투구꽃, 놋젓가락나물, 흰진범, 진범, 백부자, 개싹눈비꽃, 그늘돌쩌귀, 여로, 박새, 낭독, 대극, 개감수, 독미나리, 미치광이풀 등이 그 대표적인 독초이다.

독초의 식별방법

식 물 명	생육시기	식 별 방 법
앉은부채	3 ~ 7월	• 뿌리는 둥근 구근형이며 잎은 초봄에 토란잎과 같이 둥근 도란형으로 핀다.
천남성류 (천남성, 둥근천남성, 두루미천남성, 무늬 천남성, 섬천남성 등)	4 ~ 9월	• 뿌리는 둥근 구근형이며 둥근천남성, 큰천남성은 줄기끝에 소엽으로 3개씩 배열로 피고, 무늬천남성, 섬천남성, 두루미천남성, 천남성은 잎이 7 ~13개씩 줄기끝에 나란히 배열되어 핀다.
투구꽃류 (놋젓가락나물, 흰진범, 진범, 백부자, 개싹, (바꽃, 그늘돌쩌귀	6 ~10월	• 뿌리는 마늘쪽과 같은것이 뿌리곁에 붙어있으며 잎은 잎자루끝에 3~5개로 갈라져 달리고 단풍잎과 유사하며 가을에 자주색꽃이 피며 투구모양을 띄운다.
박새류 (여로, 박새)	4 ~10월	• 뿌리는 파모양으로 수염뿌리이며 섬유질로 싸여 있고, 잎은 넓은 선형이나 타원형으로 마늘잎 모양과 비슷하다.
대극류 (낭독, 대극, 개감수)	5 ~ 9월	• 잎은 긴타원형으로 잎자루가 없고 줄기끝에서 5~8개씩 돌려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미나리	5 ~ 9월	• 잎은 미나리와 비슷한 모양이며 6~8월에 유산 모양의 흰꽃이 피며 잎이나 줄기 부분에 상처를 내면 흰 유액이 나온다.
미치광이풀	3 ~ 7월	• 뿌리는 굵은 괴근이며 잎은 타원형 또는 계란형으로 가장자리에 거치가 없고 4월에 잎끝에 가지꽃 모양으로 핀다.

경영정보

지속적인 자연송이버섯 증수방법소개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연간 500억원 상당의 농산촌 소득을 안겨주는 송이버섯의 지속적인 증수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 구창덕 연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이버섯 인공재배는 국내외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자연산 송이버섯 증수방법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송이균은 소나무뿌리와 공생하여 송이의 모체가 되는 균환을 만들며, 이 균환은 땅속에서 매년 10~20cm씩 자라고 있으나, 소나무 이외의 잡관목이 우거지거나 지표면에 낙엽이 많이 쌓이면 모두 죽게된다.

따라서 현재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송이균환의 위치를 파악한 후 송이균사가 뻗어가서 송이가 발생할 장소인 균환의 전방에서 잡관목과 두터운 낙엽을 완전 제거해 주면 송이 발생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약 40%의 증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 송이(길이 4cm미만)는 키워서 따고, 채취후에는 흙을 손으로 눌러주고 주위의 지피물로 가볍게 덮어 주어 균사의 보호와 수분증발을 막아주는 것이 송이의 보속생산을 촉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송이버섯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연간 약800M/T생산에 750톤을 수출 8천만$의 외화를 올리고 있으며, 채취시기는 7월말~10월중순으로 단기간에 많은 농가소득과 외화획득을 올릴수있는 계절 특산품이라고소개했다.

아까시나무 용도별 수요와 꿀 소득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아까시나무 연구회에 연구용역결과 우리나라 아까시나무 자원은 1960년부터 '78년까지 321천ha, '79년~'83년까지 2,500ha등 지금까지 약 323,500ha를 조림하였으며, 연간 용재생산 가능량은 11,000㎥로(수종갱신 7,150㎥, 지장목 1,760㎥, 간벌재 660㎥, 기타 1,430㎥) 활엽수 중에서는 참나무류, 포플러류, 오리나무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

아까시나무 목재총생산량 11,000㎥의 용도별 수요량을 보면,

- 펄프용재 9,990㎥ (90.8%)로 가장 많고
- 건축내장재 510㎥ (4.6%)
- 가 구 용 180㎥ (1.6%)
- 공 예 용 133㎥ (1.2%)

-기 타 200㎥(1.8%)등으로 조사되었다.

아까시나무 용재 수요예측결과 연간 406천㎥로 추정되며 용도별로는 건축내장재 46천㎥, 철도침목50천㎥, 차량상판용 147천㎥, 가구용 100천㎥, 토유판(土留板) 53천㎥, 통나무 10천㎥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아까시나무의 확대조림은 지양해나가는 한편, 기존 아까시나무를 잘 관리하여 국내 수요를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아까시꿀은 5월초부터 남부지방에서부터 북상하면서 5월하순이면 한강이북·서해안까지 이동하면서 꿀을 채취하게 되는데 주요밀원식물은 야생으로는 싸리, 피나무, 밤나무등이 있고, 재배식물은 메밀이 있다.

○'93년말 우리나라 양봉농가는 약43,000호에서 11,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아까시꿀은 연간 6,900톤에 65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체 꿀생산량의 62%, 양봉농가의 수익중 70%이상을 아까시꿀이 차지하고 있다.

○아까시나무 수령을 약 40년으로 볼때 수령별 벌꿀생산량은 15년생일때 ha당 418kg로 가장 많고, 20년생 407kg, 25년생 369kg로 점차 감소되어 30년생은 305kg, 35년생은 214kg으로 줄어든다.

○아까시꿀은 가장 좋은 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로얄제리는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국산 아까시꿀에는 로얄제리가 2.3~3.5%나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수급전망과 공급대책

-'95까지 미얀마등 8개국에 해외조림투자 타당성조사 실시-

산림청은 현재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원목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나, 금후 외재의 도입이 점차 어려울 전망이므로 국내 자급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집약적인 국내산림자원의 육성 및 해외조림을 적극 확대하여 외화절약과 국내목재의 안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국내 원목수급현황과 전망

○산림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재수입에 따른 총 외화 소비액은 연간 약 25억US$나 되고 있으며, 이중 원목수입에 지출하는 외화만도 약 12억US$에 달한다고 밝히고, 외화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국내 목재자급율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원목소비량중 약 12%만이 국내재로 공급되고 88%가 외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2040년에도 총 원목수입량 23,500천㎥중 국내목재공급은 14,100천㎥에 불과하여 자급율은 약 60%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한편 환태평양지역의 주요원목 생산국가들에 대한 산업용재의 생산량예측치에 의하면, 1990년 현재 약 300백만㎥의 생산량 수준이 연간 1%씩 감소되어 2005년에는 약 265백만㎥의 생산량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입물량확보에 어려움과 원목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환태평양시장 주요생산국의 목재생산전망-

(단위 : 백만㎥)

생산국	1990	2005	증감
계	300	265	△35
미국	85	49	△36
캐나다	75	63	△12
극동러시아	32	43	11
칠레	12	25	13
뉴질랜드	13	25	12
말레이지아	40	12	△28
인도네시아	40	45	5
P N G	3	3	-

2. 최근 국내외 목재공급동향

○국내적으로는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산업용지로서의 산지에대한 수요로 목재만의 생산을 위한 산림면적은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될 전망임.

○국제적으로는,

1) UN환경개발회의이후 CO_2 흡수원 및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산림의 가치가 인식되어 천연림에 대한 벌채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 북서부지역 : 반점올빼미의 보호를 위해 3~4백만ha에 달하는 노령림을 보존임지로 지정 벌채 규제
   - 러시아 극동지역 : 국제환경보존단체에 의한 목재벌채 제약
   - 말레이지아의 사라왁주 :ITTO 권고에 의해 1993년 총 목재생산량의 감축을 결정
2) 목재자원 보유국이 자국 임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원목의 수출금지가 강화되고 있음.
   - 말레이지아반도(1972년), 인도네시아(1980년), 미국 원싱톤주(1992년, 주유림대상), 말레이지아의 사바주(1993년)등이 원목의 수출을 금지

3. 국내목재시장에의 파급영향

- 수입목재도입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의한 목재가공품(합판, 제재목등)의 생산비용상승과
- 생산비용상승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가공품이 수입목재가공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입목재가공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

-주요목재수입 가공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

품목	1985	1990	1991	1992
합판	1	41	48	52
제재목	5	16	20	21

4. 목재자급율 향상을 위한 장단기 목재공급대책

○국내생산임지의 집약적인 간벌등 육림

작업으로 생산될 시설의 확충을 통한 노동생산성향상 및 원목의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여 국내목재자급율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국내의 목재수급전망-

(단위 : 천m')

구 분	1992	2000	2010	2020	2030	2040
원 목 수 요 량	9,182	15,100	21,000	22,500	23,500	23,500
국내재공급량	1,123	2,542	4,787	7,530	10,852	14,100
수 입 량	8,059	12,558	16,213	14,970	12,648	9,400
자 급 율(%)	12	17	23	33	46	60

-임도시설 장기계획-

(단위 : km)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2001	2002~2010
계	1,224	1,260	2,000	2,300	2,600	14,500	28,498
ha당m	0.75	0.93	1.34	1.69	2.20	4.70	10.0

○해외조림투자를 확대하여 해외목재자원의 공급원을 확보코자 현재 25,000ha (호주 10,000ha, 베트남 15,000ha)의 조림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부족한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면에서 적극 지원책을 강구중이며,

-조림투자에 의한 해외임지 확보계획-

(단위 : 천ha)

년도	1993	2000	2010	2020	2030	2040
확보 면적	15	50	175	375	575	700

○이와함께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UR협상타결 이후 세계 목재무역이 환경의 질적 저하를 가속 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주요목재자원보유국의 원목수출금지가 정당한 환경적인 목적을 위한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인지 혹은 환경 보전을 위장한 보호무역주의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금후 WTO 체제하에서의 환경라운드(GR)에서의 다자간협상을 위해 목재자원 보유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해외조림투자 타당성조사를 '93년 칠레,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94년에는 베트남, 미얀마 '95년에는 말레지아, 솔로몬, PNG 등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